

변방의 존재, 청소년들을 솔직하게 만나는 두 편의 보고서

어른들은 '세상의 중심이 되어라'는 말을 청소년들에게 덕담삼아 하곤 한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은 사회의 '중심' 보다는 '변방의 존재' 혹은 '미지의 존재'로 취급받는다.

최근 우리교육에서 발간한 두 권의 책은 청소년을 타자가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문제아들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의 문화로 볼 것을 권유하기에 시선을 끈다. 각 책의 저자들은 같은 대상의 문제에 접근하되 그들의 문제를 요리하는 데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

'청소년 Report'라는 보고서 형식의 이름을 달고 나온 두 권의 책 중 《가출, 지금 거리에 '소녀'는 없다》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 언론에서 수없이 얘기해 온 학교 밖 아이들의 이야기, 가출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서 형식으로 담은 책이다. 그러나 매스컴의 청소년 보고서와 기존의 도서들이 단순히 일탈된 청소년 문화를 소개하면서 보는 이의 시선만을 집중시키는데 반해 이 책은 허세 없는 진실한 말투로 그들의 문화에 접근하고 있다. 저자는 신촌 현대백화점 앞과 거북이공원, 이화여대 앞 등지로 네트워크화된 청소년들의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20명의 십대 여성들을 만났다. 저자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의식 있는 사회부 기자처럼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한 민가영 씨는 학교, 가정이 전통적인 의미를 상실한 이후 쉽게 학교와 집의 담장을 넘으며 자유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아이들의 삶의 모습에 '이해'의 시선을 보낸다. 이 어른은 아이들에게는 집도 가정도, 이 세상 어느 곳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염려하는 것은 집을 나온 후 방황하는 소녀들이 '자기 몸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몸에 대한 존중심을 상실하고, 스스로를 해하면서 쉽게 성매매업에 유입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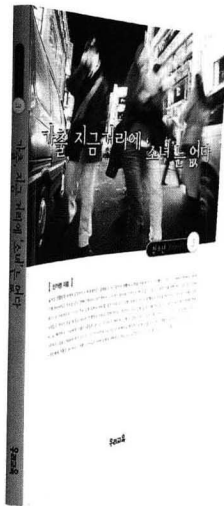
그는 이 같은 염려와 고민 끝에 대안을 찾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어른들이 가출을 사전에 막고 방황하는 학생들을 조기에 적발하여 귀가시키려는 방법을 구상한다. 음성변조,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방송기술을 동원하여 청소년 리포트를 작성하는 매스컴의 대표적인 결론맺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민가영 씨의 결론은 다르다.

그는 인터넷 문화 발전으로 인해 학생들이 집, 학교와 세상의 경계를 넘는 일은 더욱 손쉬워지고 더 이상의 규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가출을 특수한 일탈행위가 아닌 청소년들의 지배적 문화현상으로 규정한다.

경계수위를 넘은 만큼 가출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이해할 수 없는 폭력과 규제로 학생들을 억압하는 집과 학교 역시 믿을 만한 곳이 못 된다. 저자는 이에 발전적인 경험쌓기의 수단으로 '가출문화'를 제안한다. 그 방법론 중의 하나는 아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사회적 공간 확보와 함께 십대 여성들의 삶과 몸에 대한 결정권, 책임의식을 키워주는 선에서의 대안모색이다. 가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집과 학교, 세상은 청소년들이 가출을 선택할 만큼 암울하고 무서운 공간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 암울함 속에서 가출家出이 아닌 가출佳出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보자는 것이 저자의 논리다. 무조건 집으로 돌려보내자, 혹은 단순한 제도비난보다는 집, 가정 어느 곳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쉼터를 제공하자는 제안을 하는 저자의 어른됨이 빛을 발하는 책이다.

《가출, 지금 거리에 '소녀'는 없다》가 학교와 가정에서 벗어난 담장 밖 아이들의 문



《가출, 지금 거리에 '소녀'는 없다》
민가영 지음 | 우리교육 | 152쪽 |
값 7,000원

화를 조명했다면 《실업계, 암순이들의 보고서》는 학교 담장 안에 존재하는 아이들의 하위 문화를 파고든다. 그동안 진학교민에 시달리는 인문계 학생들이나 가출청소년들의 이야기는 청소년 문제의 주논의거리가 되어왔지만 실업계 학생들 속의 문화를 발견해 낸 보고서는 전무한 상태였다. 그런 점에서 저자인 안재희 씨의 시선은 남들이 미처 발견해 내지 못했던 가치 있는 공간에 머문다.

암순이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취업을 거부하며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말한다. 저자는 서울에 있는 잠잠여상 학생들을 진로방향, 성적, 가정형편, 입학 당시 열등감 여부 등에 따라 분류한 후 그 중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암순이’ 집단에 주목했다. 암순이들 대부분은 ‘낮은 성적’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회계, 컴퓨터 등을 배우면서 한편으로는 진학공부를 강행하는 이중생활을 해나간다. 이들이 실업계에 있으면서도 진학준비를 하는 이유는 뻔하다. 학벌위주의 사회에서 실업계 학생은 늘상 ‘노는 애들’ 혹은 ‘담배나 피우고 반항이나 하는 불량한 애들’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이 때문에 힘든 이중생활을 감내하면서 ‘실업계 학생’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은폐하려 한다.

그들은 실업계에서 제대로 된 3년을 보낸 자신들이
인문계에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찌꺼기로 남는 친구들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는 인문계 꼴찌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쉬운 일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이는 실업계 학생들에게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규칙이다.

안재희 씨는 이를 단순한 현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이 같은 불합리한 인식과 규칙이 낳은 암순이들의 문화는 청소년 문화의 일부다. 인문계 학생과 질적으로 다른 학생들로 실업계 학생을 구별짓는 시선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부정하는 체제 속에 들어가는 소극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뿐이다. 이에 대한 저자의 대안은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하다. 그것은 실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인문계와 실업계를 이분화시키면서 암묵적으로 학력사회 구조를 콘크리트화 하려는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청소년 문제가 구체화될 때마다 제시되는 뻔한 정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업계 학생들의 고민거리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려 담론화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책은 큰 의의를 갖는다.

한때, 《고양이를 부탁해》라는 영화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심심찮은 사랑을 받은 적이 있다. 인천이라는 주변부에 살고 있는 상고 졸업생들의 스무 살 풍경을 담은 영화는 주변부에서 방향을 거듭하고 좌절하는 이십대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 권의 보고서 역시 영화만큼이나 진솔하게 사실 그대로의 아이들 모습을 담는다. 이 친구들 역시 주류 아이들에게 가려진 채 비주류, 변방으로 내버려진 존재들이다. 스스로를 낙오자로 자인하며 방황하는 아이들을 더 이상 누군가에게 부탁해서는 안 된다. “니들이 그렇지 뭐”라는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들 자신이 아이들의 문화를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책을 통해서나마 “우리들도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혹은 “선생님들이 그래요. 니가 다 물을 버려놓는다고”라며 한숨을 내쉬는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인 두 저자의 애정어린 관심이 반갑게 느껴진다. **한민**

김청연 기자



《실업계, 암순이들의 보고서》
안재희 지음 | 우리교육 | 144쪽 |
값 7,000원

3월, 새학기를 시작하는 청소년들에게 권하는 세 권의 책

추천: 백화현

이 책에 나오는 나무를 심는 노인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봐주지 않는데도, 혼자서 황무지에 나무 씨앗을 심어 그곳을 낙원으로 바꾸었지요. 새학년을 맞아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3월에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이 책을 읽혀, 아이들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다질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심은 사람》
장 지오노 지음 | 김경은 옮김 |
두레 | 135쪽 | 값 6,500원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친구 문제를 제일 걱정하게 됩니다. 친한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혹 왕따는 당하지 않을까 등으로. 이 책은, 얼굴이 빨개지는 병에 걸린 아이가 친구도 없이 외톨이로 지내다 시도 때도 없이 재채기를 해대는 친구를 만나 아름다운 우정을 쌓아가게 되는 얘기입니다. 외모(혹은 장애)로 인해 상처받은 적이 있거나 그런 친구를 무시한 적이 있는 아이들 모두에게 꼭 한 번 읽고 싶은 책입니다.

얼굴 빨개지는 아이 Marcellin Caillou

얼굴 빨개지는 아이

Marcellin Caillou

《얼굴 빨개지는 아이》
장 자크 상베 글·그림 |
김호영 옮김 | 열린책들 |
122쪽 | 값 7,500원



빈민가에서 자란 지은이는 경제력은 없지만 낭만적인 아버지, 의지가 강한 어머니, 그리고 정이 많은 동생과 함께 가난하지만 자존심을 잃지 않으며 삶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새학년이 시작되면 호기심도 많지만 두려움도 많습니다. 뜻대로 안 될 때는 세상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욕구도 많아지고요. 이 책은 그런 친구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있게 한 모든 것들》
벤티 스미스 지음 |
김옥수 옮김 | 아람드리미디어 |
350쪽 | 값 7,500원



백화현 선생님은?

1959년생으로 1984년 당곡중학교에 국어과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교조 문제로 미성중학교에서 1989년 9월에 해직되었다가 1994년에 봉은중학교에 복직되었습니다. 현재는 난우중학교에 재직하고 있으나 2003년 3월 1일부터는 관악중학교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도서관분과 서울 모임 활동을 통해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과 좋은 책 읽히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